

# “머머리 인형” 마을로 초대합니다

## 엄정에 작가

‘인형엄마의 머머리 인형’ 전

31일까지 호랑가시나무 아트폴리곤

페웃가지·신문·페박스 등 활용

다양한 이야기 작품에 풀어내

5·18 40주년 기념

시민들과 인형 45개 만들어

애니메이션 ‘바리공주’도 제작

집은 미국이지만 광주 정착 고려 중



1 ‘인형엄마’ 엄정에 작가가 인형을 머리에 쓰고 포즈를 취했다. 뒤는 미국인 시어머니 인형. 2 어릴 적 늘 학교로 엄정에 작가를 데리러 오곤 했던 할머니.

‘인형엄마’ 엄정애(65) 작가가 한달 간 문을 연 ‘인형의 집’에 다녀왔다. 엄 작가가 ‘다른 시점으로 가는 듯한 시간의 문이 있는 곳’이라 멋지게 표현한 광주 양림동 호랑가시나무 아트폴리곤(225-25번지)에서 열리는 ‘머머리 인형’전이다. ‘머머리’는 ‘흐르는 물에 떠내려온 작은 퇴적물’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자신의 인형과 닮은 것 같아 그리 부른다.

전시장에서 만나는 인형은 제각각 사연이 있고, 제작 방법도 다 다르다. 그림책에 등장하는 주인공 같은 인형엄마 이야기를 듣다보면 동화의 나라에 온 듯한 기분이 든다. 사람들은 엄 작가의 설명을 들으며 개구리 인형을 쓰고 사진을 찍고, 손가락 인형으로 동화구연도 해본다. 딱 한 사람만 관람할 수 있는 ‘상자인형극’ 장치 등 전시장 곳곳에선 ‘숨은 그림 찾기’ 하듯 작품을 만날 수 있다. 붉은 벽돌, 담쟁이 덩굴 등이 어우러진 전시장에서 인형들과 시간을 보내다 보면 마음이 따뜻해진다. 아이들보다 어른이 더 즐거운 전시다.

엄 작가의 명함엔 ‘366 인형엄마’라고 적혀 있다. 그는 ‘좋아서 하는 일’이라 1년 365일하고도 ‘하루’ 더 인형을 만든다는 의미라 웃었다.

오는 31일까지 계속되는 전시에는 그가 미국에서 들어올 때 수트케이스에 담아온 5cm 작은 인형부터, 지난 1년간 한국에 머물며 시민들과 작업한 3m 가까운 큰 인형까지 다채로운 작품이 나왔다.

서울에서 나고 자란 그는 간호학을 공부했다. 손재주가 좋아 엄마 숙바지 잘라 인형 옷을 만들곤 했던 그녀는 1976년 ‘종이와 인형’ 극단에서 인형을 만들기 시작한 후 2000년 창단한 극단 ‘인형엄마’를 통해 인형극과 인형만들기를 이어왔다.

미국에 정착하기 전 해외입양아의 부모 찾아주기에 적극 나서기도 했던 그는 결국 엄마를 만나지 못하고 미국으로 떠나는 입양아에게 선물로 들려준 한지 인형 다섯 점이 계기가 돼 인디애나폴리스 박물관에서 전시를 열게 됐고 미국 워크숍에 참여해 큰 인형 만드는 법을 배우기도 했다.

12년째 미국 미네아폴리스에 살고 있는 엄 작가는 지난 2019년 전남대 시민대학이 진행한 큰 인형만들기를 통해 광주와 인연을 맺었다. 시민, 지역 예술가들과 인형을 만들고, 일인 인형극을 소개하는 데



이들 인형극제, 워크숍 등을 진행했던 그는 지난해 봄 광주를 다시 찾았고, 지금까지 머물고 있다.

“다음 해가 5·18 40주년이라는 말에 꼭 와서 시민들과 함께 인형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처음 광주에 왔을 때 오월 기록관을 찾고 책도 읽으며 오월에 대해 알아갔고, 밤마다 울기도 하고, 아파하기도 했죠. 기회가 되면 당시 세상을 떠난 165명의 인형을 금남로에 세우고 싶었습니다. 결국 광주 아티스트 6명, 시민들과 힘을 합쳐 45개의 얼굴 인형을 만들었죠. 시민들은 직접 도시락을 싸 가지고 오셔서 함께 풀칠하고 인형을 만들어나갔죠.”

윤상원 열사 등 엄 작가와 시민들이 만든 커다란 얼굴 인형을 쓴 이들은 오월시민행진을 펼쳤고, 이때 현장 사진은 전시장에서 만날 수 있다.

엄 작가의 작업은 한지를 이용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폐신문지와 페박스 등을 활용한다. 인형옷 역시 버려진 옷가지를 재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번 전시에서는 커피 필터를 붙여 만든 인형 작품도 전시됐다. 지인들이 택배로 보내준 커피 박스, 야채 박스도 그의 손을 거쳐 멋진 작품이 돼 전시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손을 거치면 버려졌던 물건들도 새로운 생명을 얻는 셈이다.

전시장에서 눈에 띄는 건 신문지와 사료 포대로 만든 3m 높이의 거대한 인형이다. 포항 도시재생 사업에 참여했던 엄 작가가 ‘집’에 대한 이야기를 풀고 싶어 작업한 작품으로 자세히 들여다 보면 류시화의 시 한구절이 새겨져 있다. 입구에 설치된 대형 얼굴 인형은 엄 작가의 시어머니다. 남편과 일찍 사별해 홀로 두 아이를 키운 엄 작가는 음악을 하던 미국인 남편을 과천 마당극축제에서 만났고, 아이들이 모두 자리를 잡자 미국으로 떠났다.

전시장 바닥 낙엽 사이에 숨은듯이 놓여 있는 5cm크기의 작은 인형은 마음을 아프게 한다. 트럭 위에 타고 있는 여러 명의 소녀 인형들은 위안부 피해자들이다. 늘 학교에 자신을 데리러 왔던 할머니와 어린시절 엄작가의 모습이 담긴 인형을 보면 웃음이 번지고, 그림책 속에서 막 뛰쳐나온 듯한 다채로운 인형을 구경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 또 그가 제작한 애니메이션 ‘바리공주’도 만날 수 있으며 광주에 머물며 새롭게 시도한 동판화 작업과 평면화 작품도 처음으로 선보인다.

“사람들과 인형을 만들 때 저는 ‘종이선(禪)’이라는 말을 해요. 인형을 만드는 종이를 가져오면 마음이 가라앉고 차분해지거든요. 사람들이 인형 만드는 게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19로 출국하지 못하고 현재 시내 원룸에 머물고 있는 엄 작가는 “광주에서 너무나 따뜻한 사람들을 많이 만났다”며 아예 광주에 정착하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따뜻한 마음으로 사람을 풀어주고, 그 마음을 담아 정성스레 인형을 만드는 ‘인형엄마’가 함께한다면 광주엔 언제나 ‘동화 같은’ 아름다운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겠다.

/글·사진·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 시애틀에 빠져들다

‘시애틀은 우산을 쓰지 않는다’ 김태엽 아시아나항공 상무 출간

‘후드를 쓰고 커피를 손에 쥔 채 보슬비를 맞으며 걸어도 좋은 도시’는 어디일까? 저마다 각기 다른 답을 할 것 같다. 세대와 취향, 경험에 따라 떠오르는 도시는 다를 터이다. 그런데 ‘시애틀’이라고 주저 없이 말하는 이가 있다. 광주 출신 아시아나항공 김태엽 상무가 그렇다.

최근 김 상무가 ‘시애틀은 우산을 쓰지 않는다’ (노란잡수함)를 발간했다. 제목부터 시작된 책은 30년째 아시아나항공에서 근무 중인 저자가 시애틀에 주재(2012~2016년)할 당시 보았던 풍경과 자연을 담아 펴낸 인문여행서다. 그는 스스로를 “자연과 역사 탐방을 위해 어디론가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스토리 유목민”이라고 말한다.

시애틀은 비와, 전나무, 안개, 호수, 계곡 등이 인상적이다. 물이 흐르지 않는 거대한 폭포의 흔적은 저자에게 가장 기인한 장면 중 하나다.

제목 ‘시애틀은 우산을 쓰지 않는다’는 무슨 뜻일까? 이곳은 안개처럼 비가 흩부리는 날이 많아 사람들은 우산을 쓰지 않는다. 후드가 달린 방수 옷을 입고, 자연스럽게 커피를 찾게 된다는 것이다. 이곳에



서 우산을 쓴다면 그는 십중팔구 여행자나 방문자일 거라는 얘기가. “시애틀에 내리는 비, 짙은 안개, 쪽쪽 뿜는 전나무, 깊고 푸른 호수, 깊게 패인 계곡 그리고 평범해 보이는 산과 들에도 다양한 이야기가 숨어 있는 시애틀에 빠져들다. 워싱턴 주 동부의 황량한 대지에 깊게 패인, 지금은 물이 흐르지 않는, 거대한 폭포의 흔적은 내 인생에서 본 기이한 장면 중 하나다.”

저자는 우리나라에서 서북미로 여행을 떠나는 이들과 시애틀에 관심이 있는 이들과 경험을 공유하고자 하는 바람에서 책을 펴냈다. ‘마틴 루터 킹의 도시’, ‘살아 움직이는 옐로우스톤’, ‘개는비치와 헤이스택 바위’, ‘북미의 젓줄 클레이서 국립공원’ 등 저자가 보고 느끼고 앞으로 다가왔던 단상들이 유려한 문체로 갈무리돼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

‘Composition I’



## 기하학적 패턴의 웨딩드레스

양효정 패션워크 5번째 개인전, 29일까지 LH 휴랑갤러리

‘순백의 개성 있는 웨딩드레스를 만나다.’ 양효정 패션워크 5번째 개인전이 오는 29일까지 광주시 서구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 본부 LH 휴랑갤러리에서 열린다.

“The construct white”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 선보이는 작품은 새로운 감각으로 디자인한 웨딩드레스다. 특별한 날을 더욱 특별하게 만드는 웨딩드레스는 신부에게 잊을 수 없는 추억을 선사하는 의상으로, 웨딩드레스를 주제로 한 전시는 광주에서는 좀처럼 만나기 어려운 기회이다.

이번 전시작은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웨딩드레스 디자인 방식에서 한 발 나아가 건축적 패션 디자인의 조형적 특성을 웨딩드레스라는 장르에 녹여낸

작품들로 부드러운 소재인 실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작품을 완성했다. 기하학적 형태로 만들어진 복식 디자인은 몸 위에 걸쳐지면서 편평함을 잃고 섬세하고 흐르는 듯한 유기적 형태로 변형된다. 작가는 이를 활용해 평면적인 패턴 조각이 중력에 의해 늘어지거나 걸쳐지면서 완전히 다른 형태로 변모하는 방식을 멋스럽게 구현했다.

BONHEUR 웨딩디자인 전문학교를 졸업하고 조선대 디자인대학원에서 석사와 박사 과정을 마친 양 디자이너는 조선대 미술대학 패션디자인 전공생을 대상으로 강의하고 있으며 패션아트디자인학원 원장으로 활동중이다. ‘My baby dress’ 등 다양한 주제로 개인전을 열었다. /김미은 기자 mekim@

SINCE 1982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보세요”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 국제보청기

-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

